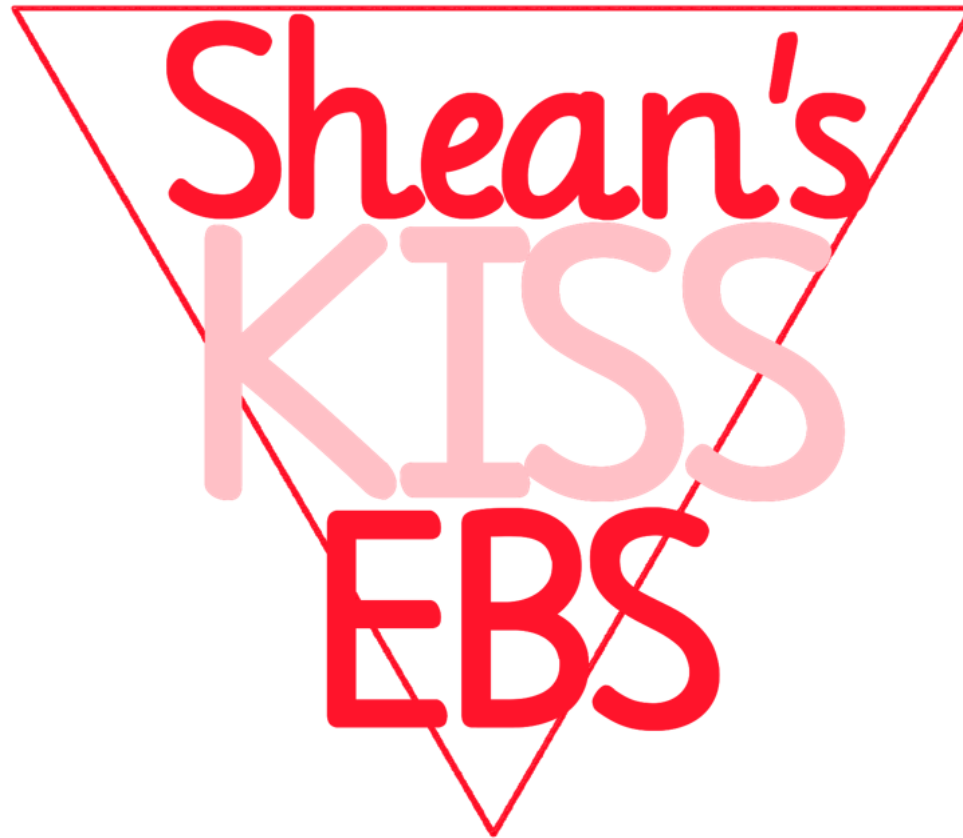


# 주간



**Keep It Simple and Short**

2019학년도 수특영독 **W11(10~T1)**

영어 노베이스에서 100점으로 이르기 위한 영어 공부는 크게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단어, 해석(문장 단위), 문풀(지문 단위). 학생들이 영어를 공부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은 바로, 세 번째 요소인 '문풀'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영어는 국어, 수학에 비해 문풀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절대적으로'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겠죠. 단어, 해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영어 문풀은, 사상누각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적당한 난이도의 영어 빈칸 지문 하나를, ebs 해석 말고 정성을 들여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잘 번역했다고 합시다. 그럼 글을 '이해'하는 데 우리는 한국인이므로, 큰 무리가 없겠죠. 그러면 문제를 푸는 '사고 논리' 자체는, 정말 스무살 지성인을 위한 수준일까요..? 대부분이 그 아래일 겁니다. 그러한 수준의 문제도 물론 있습니다만, 현 절평 영어 체제에서 많아봐야 두 문제고, 이 마저도 절평이기에 그렇게 타격이 크지 않은 상황이죠. 다시 말해, 단어를 제대로 알고 이를 활용해 해석이 전반적으로 자연스럽게 되는 수준이면 절평 영어 1등급에 거의 근접한다는 얘기입니다.

제발, 본인이 '공부하기 쉽게 느껴지는' 문제 풀이에 집착하지 마시고, 빨라도 6평까지는 단어에 대한 고민, 더 나아가 이를 활용해 '어떻게 자연스럽게 해석할 것인가'하는 고민을 많이, 아주 많이 하세요. 그리고 문풀 논리를 익히는 것은 6평 후부터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고, 해석이 자연스럽게 되는 학생이라면 문풀 논리를 익히고 체화하는 건 한 두 달이면 됩니다. 제발, 수학 문제 하나를 두고 오래 고민하듯, 한 문장을 한 지문을 두고 어떻게 '한국말로' 자연스럽게 해석할 것인가 해석을 고민하세요.

그리고 이를, 'EBS 영어'로 하는 겁니다. 기출 영어만큼 지문의 문풀 논리가 좋은 지문이 많은 건 아니지만, EBS 영어 지문도 단어와 해석을 위한 '좋은 영어 지문'임은 맞으니까요. 무엇보다, 고3 내신의 시험 범위이고, 6, 9, 수능에 '똑같은' 지문이 7, 8 개가 나오는데, EBS가 아닌 다른 교재로 영어 공부를 한다는 것은(평가원 기출 제외) 참,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EBS 연계 교재 3권의 1000지문 가까이 되는 영어 지문의 모든 단어와 해석을 공부하면, 절평 영어 1등급에 넘치면 넘쳤지, 부족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름부터, 평가원 기출로 문풀 논리를 병행하며 체화하고 그냥 100점 맞으세요 ☺

명심하세요. 고정 100, 고정 1이 나오는 친구들 중에, 문법 용어를 모르는 친구들은 많습디다만, '해석'을 시켜보면, 예외 1도 없이, 다 자연스러운 한국말로 곧잘 해석을 합니다.

## Shean's KISS EBS

## How to Study

1. EBS 연계 교재 해당 '강'을 시간을 재고 본다. 본인의 실력과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 문제 당 1~2분을 설정하고 본다. 시간을 재고 풀어야 가장 집중을 잘한다. 뇌는.
2. 채점을 한다. 혹, 본인의 모의고사 성적에 비해 많이 틀린다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문풀의 기준은 평가원 기출.
3. 꼭, 이 자료를 보기 전 지문을 보며 '혼자' 해석을 해본다. 제발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인다는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해석이 잘 되는가, 객관적으로 본인을 체크한다. 모르는 단어, 잘 안 되는 해석 부분을 체크한다.
4. 자료의 요약, 단어, 변형을 보며 내용, 어휘, 변형 논리를 이해하도록 한다. 자료에 없으나 추가적으로 모르는 단어는 꼭 네이버나 구글에 물어봐 찾아 적는다.
5. 각 문제 분석 페이지 다음에 있는 해석 공간에서 시간을 재고 해석을 한다. 본인의 실력, 지문의 난이도 및 길이에 따라 한 지문 당 짧게는 5분(1등급)~길게는 10분으로 꼭 시간을 재고 한다. 시간을 재고 해석해야 늘어지지 않고, 집중을 가장 잘한다. 뇌는.
6. 해석을 하다가 10초 정도 고민했으나 모르는 부분, 문장은 '비워두고' 넘어가서 해석을 한다. 우선은 정해진 시간 내에 지문 하나를 다 해석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7. Shean.T의 해석과 비교를 하며 맞추어 보고, 비워둔 부분을 Shean.T 해석과 검색 및 질문을 통해 해결한다. 이 비워둔 부분은 '빨강색' 볼펜으로 채우는 게 좋으며, 그 부분을 본인의 '오답 해석 노트'에 옮겨 적는다. 이게 바로 본인의 비장의 노트.
8. 복습이 중요하다. 이렇게 한 주간의 KISS EBS를 끝내고 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번엔 '구두로' 다시 한 번 지문 해석들을 꼭 해본다. 이러면서 영어 단어, 표현, 문장 구조, 해석 능력이 자꾸 체화가 되는 거다. 한 파트(수특영어 유형편, 주제소재편, 테스트 이렇게 세 개의 파트 정도로 볼 수 있다)가 끝나면 또 처음으로 돌아가 복습 해석!
9. 급격히 향상된 어휘력, 해석력 그리고 EBS 연계의 도움으로 가볍게 1등급을 맞는다.
10. 여러 곳에 감사의 후기를 올려주면 정말 감사하다.

문장 해석을 할 때 필자가 강조하는 세 가지 키워드는 바로, 순차적으로, 자연스럽게, 단순하게 해석하는 것이다.

첫번째, ‘순차적으로’부터 살펴보자면,

1. 순차. 영어 한 문장이 있으면, 그 한 문장의 맨 끝을 앞으로 가져오는 해석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소위, 그 유명한 ‘직독직해’를 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 아래 16학년도 수능 문장을 보시면,

It is likely that age changes begin in different parts of the body at different times and that the rate of annual change varies among various cells, tissues, and organs, as well as from person to person. (15.11.23)

a. 나이 변화는 신체의 다른 부분에서 다른 시기에 시작하며 매년 변화의 속도 또한 사람마다, 그리고 다양한 세포, 조직, 기관에 따라 다양할 가능성이 높다. (X)

b. 가능성이 높다 / 나이 변화가 시작할 / 몸의 다른 부분에서 / 다른 시기에 / 그리고 매년 변화의 속도는 다양할 / 세포, 조직, 기관마다 / 또한 사람들마다. (O)

a의 해석은 사실상 해석이 아니라 ‘번역’이다. 이 일은 번역사가 하는 것이고, ‘독해’를 하는 수험생이 해야 하는 어떤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빠르고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의미 파악’**이다. 따라서 b와 같이 앞에서부터 쪽 가면서, **‘본인이 한 번에 받아들일 수 있는 의미 & 구조 단위’**로 묶고, 한국말을 자연스럽게 만들어가는 것이 좋은, ‘실전적인 해석’이다.

B에서 볼 수 있듯이 포인트는 어떻게 한국어 ‘조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본인이 영어 단어와 문맥에 따라 ‘자연스럽게 만들어가면서’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조사를 잘 써야, 단어와 단어, 덩어리와 덩어리가 잘 연결된다. **이 연습을 많이 많이 하셔야 하고, 영어 고정 1등급은 해석을 시켜보면 이걸 잘한다.**

‘어디서 끊느냐’ 하는 것에 정답은 없다. 본인이 한 문장이 쪽 한 눈에 들어오고 의미 파악이 된다면 끊을 필요도 없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 한 눈에 파악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대충 쪽 가는 것은 킬러 수능 영어 문제를 푸는 데 그리 좋지 않다. 한국어로 ‘하나의 의미 단위’를 이루는 부분이 제일 좋고, 필자는 전치사, 관계사, 접속사 앞에서 주로 끊는다. 참고!

문장 해석을 할 때 필자가 강조하는 세 가지 키워드는 바로, 순차적으로, 자연스럽게, 단순하게 해석하는 것이다.  
두번째, '자연스럽게'를 살펴보자면,

2. 자연. 어떠한 단어, 혹은 어떠한 의미 덩어리를 제발 본인이 외운 그 사전의 첫번째 뜻으로 마구 넣어 해석하는 것을 지양하자. 물론, 우선 해당 단어의 사전 첫번째 뜻을 외우는 것이 '필수 전제 조건'이기는 하다. 하지만 해석을 할 때에는, 그 외운 뜻을 바탕으로 문맥상 어떻게 자연스럽게 '적용'하여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바꿀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러한 전환 과정이 없이 그냥 외운 뜻을 넣기만 하게 되면, 한국어인데 한국어가 아닌 무엇이 되고, 뇌가 어색하게 느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게 된다.

예를 들어, establish라는 단어는 '설립하다'로 외웠을 것이다. 이 '설립하다'라는 뜻이 이 단어의 기본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문맥에 따라 '맞는 한국어'로 바꿔 해석해가야 한다는 것이다. Establish order(질서)라고 했다고 하자. 한국어로, '질서를 설립하다'라는 게 말이 되는가? 설립은 보통 재단, 기관을 설립하지 질서를 설립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이와 비슷하면서 '질서'와 어울리는 한국말은? 바로 '질서를 확립하다.' 또한, established experts가 있다고 하자. 직역하면 '설립된 전문가들'인데, 역시나 이건 한국어가 아니다. 하지만, '설립된'을 통해 무슨 '느낌'인지는 아는 것이다. 그리고 전문가와 연결시켜 자연스러운 한국어를 떠올린다. '이미 설립된.. 이미 세워졌구나.. 전문가가 이미 설립돼서 자리를 잡았어..' 아, '이미 자리를 잡은' 전문가들이구나. '인정 받는', '저명한'까지 가도 우리가 없고 다 자연스러운 해석이라는 것이다. '쌘! 저명한이라뇨, prominent가 아닌데요?'라는 우매한 생각에서 벗어나 얼른 '이유 있는 자유'를 누리라는 것이다.

해석에 정답은 없다. '어울리는 지 아닌 지'만 있을 뿐. 아래 14학년도 B형(헬영어) 수능 문장을 보자.

Each year more farmland was devoured to build strip malls and neighborhoods with larger homes. (13.11.43)

매년 더 많은 농경지가 / 게걸스럽게 먹혀진다(?) / 길가 상점들을 짓기 위해 / 그리고 인근에 큰 집들을 짓기 위해

걸리는 부분이 눈에 확 들어온다. 농경지가 게걸스럽게 먹혀진다니. 이게 말인가 막걸리인가. 우선 기본적으로 'devour'가 '게걸스럽게 먹다'라는 뜻이라는 건 이미 외웠어야 한다. 다음 스텝은 이걸 어떻게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바꾸느냐 하는 것이다. 자 '상황'은 농경지를 상점과 집들로 바꾼다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was devoured를 '바꿨다'라고 해석해도 상관이 없다. 의미가 명확하게 통하니까. 여기에 devour의 느낌까지 살리자면, '농경지를 갈아 엮다'까지 갈 수 있겠다. 황무지를 논으로 바꾸는 뜻이기에 정확하진 않지만 '개간'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겠고, 한국어가 좋은 친구들이라면 위의 '바꿨다'는 뜻에서 '전용된다'는 해석도 할 수 있겠다. 정답은 없다. 위와 비슷한 의미로 '본인이' 떠오른 단어를 쓰면 된다. 단, 한국어로 자연스러우면 된다. + 한국어로 자연스러우려면 'they, them'을 제발 '그들은, 그들을' 그만하고, 뭘지 파악해서 정확히 한국어로 풀어주도록 하자!

명심하자. 영어는 '언어'이고, '상식'이다. 한국어의 상식에서 움직이자.

문장 해석을 할 때 필자가 강조하는 세 가지 키워드는 바로, 순차적으로, 자연스럽게, 단순하게 해석하는 것이다. 세번째, '단순하게'를 살펴보자면,

3. 단순. 긴 문장은 정말 길다. 그리고 다른 모의평가도 아닌 '수능'을 보게 되면, 난이도가 쉬워도 대의파악(주제, 제목..)부터 한 지문에 몇 줄이 되는 긴 문장이 꼭 있다. 이렇게 긴 문장에서 보통은 지레 겁먹게 되고, 하나 하나 다 해석하려다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더 당황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긴 문장일수록, 어떻게 덩어리로 묶어 '핵심 단어'를 기준으로 '단순화'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아래 14학년도 B형(헬영어) 수능 빈칸 문장을 살펴보자.

This intentional error functions as an advance warning system, manned by the self-protection subself, providing individuals with a margin of safety when they are confronted with potentially dangerous approaching objects. (13.11.34)

어렵다. 길어도 긴 편이고, 단어도 만만치가 않다. 굳이 순차적으로,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보자면,

이 고의적인 오류는 기능한다 / 조기 경보 체계로서, / 자기 보호 자아를 통해 인간이 사용하는, / 인간에게 약간의 안전을 제공하면서 / 직면했을 때 / 위험하게 다가오는 물체에.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우선 수능 시험장에서 저 문장을 이 정도 수준으로 즉석에서 해석할 수 있는 수험생도 거의 없고,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무슨 말인지 잘 감이 오질 않는다. 이 full sentence를 어떻게, 덩어리 별로 핵심 단어를 콕아서, '단순화'할 것인가가 어려운 문장에 대한 '실전 해석'이다. 이에 따라 재구성 해보면,

이 고의적인 오류는 기능한다 / 경고 시스템으로 / 인간이 사용하는 / 안전을 제공하면서 / 위험한 물체에 직면했을 때

'진하게' 처리된 단어가 내용 전달의 '핵심'이라는 것을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내가 '단순화'하여 이해해야지 만이 읽고나서 무슨 말인지 기억에 남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저에는, 잘 살펴보면, 역시 각 덩어리를 잇는 '조사'에 핵심으로 걸리는 단어를 고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치, '고의적 오류는 기능한다. 뭐로서(as)? 경고 시스템으로서. 뭐하는? 인간이 사용하는. 뭘 제공하면서? 안전을. 언제? 위험할 때. 이런 사고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단순화' 해석은 실전적 해석으로, 본인의 해석력을 늘려야 하는 공부에서는(이 EBS 지문을 통한 해석 공부처럼), 웬만하면 단순화는 정말 필요할 때만 쓰고, 다 자연스럽게 해석해보려 연습하자. 역설적으로, 이렇게 다 자연스럽게 해석할 줄 알아야, 다 파악을 하고 뭐가 중요한지 알아서, '단순화'한 해석이 된다.

# Shean's KISS EBS

CAUTION

해당 자료의 지문 자체를 제외한 모든 내용  
즉, 요약, 변형 포인트, 어휘 정리, 직독직해의 내용은  
Shean.T가 직접 작성한 것입니다.  
해당 자료의 저작권은 Shean.T에게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특히, 과외 혹은 학원 등에서 '한 부'만 구매한 뒤  
이를 출력하여 다수에게 나눠주는 행위는,  
사교육이지만 그래도 '선생'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으로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자제해주시고,  
과외 혹은 학원 등에서 다수에게 이 자료를 배포할 경우,  
인원수만큼 구입을 하시거나,  
[sheanlee23@gmail.com](mailto:sheanlee23@gmail.com)으로 사전 연락 바랍니다.

혹 본인이 다니는 학원 등에서 이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역시,  
위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신고 보상해드리겠습니다.

필자가 잘 못 먹고, 잘 못 자가면서 만든 창작물을,  
단지 전자책이라는 이유만으로  
'법법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해당 자료에 해당하는 저자의 무료 강의를 유튜브에서 공개합니다.  
'Shean 영어' 'Shean EBS' 치시면 나오니 '구독'해주세요.  
자료와는 별개로 자비를 들여 정말 무료로 공개하는 강의이니,  
추가적인 여러 요청을 들어드리는 것은 조금 제한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Shean.T 드림.

One of the most destructive **myths** of all is the one that tells us intelligence is **innate** and fixed. It has been widely believed for centuries, and still is, that a person is either born smart or not, that education, opportunity, motivation, and hard work can only carry one so far because most intellectual ability is tightly confined by **inherited** or genetic **restraints**. Worse, these limits are believed to be **identifiable** by a test, a few report cards, or maybe by nothing more than **a mere glance** at one's physical appearance. Alfred Binet, the French psychologist who developed the intelligence quotient (IQ) test in the early 1900s, would surely be one of its most **vocal** critics today if he were still alive. He created the test specifically for the purpose of identifying children who suffered from severe mental problems or **learning disabilities** so that they could receive special attention early on. Binet never intended or imagined that his test would be seen as a valid way to measure innate intelligence and **grounds** for making **sweeping** assumptions about the innate intelligence of large groups of people.

## Summary

1. 통념: 지능이 선천적이고 불변하며, 유전적 한계가 있다 생각 + 여러 테스트나 걸모습으로 확인 가능
2. 비넷 박사는 학습 장애가 있는 친구들을 위해 IQ 테스트를 개발했는데, 의도치 않게 이 테스트가 사람들의 지능을 측정하고 확인하는 데 사용돼서 박사님이 살아계셨으면 바드바드 하셨을 것..

## KEY Point

1. 불상한 알프레드 박사님 πππ

## Vocabulary

1. myth: 통념
2. innate: 타고난
3. inherit: 물려받다
4. restraints: 제한, 제약
5. identifiable: 확인 가능한
6. a mere glance: 단순한 걸눈질
7. vocal: 목소리를 높이는
8. learning disabilities: 학습 장애
9. a ground: 논거
10. sweeping: 전면적인, 광범위한





One of the most destructive myths of all is the one that tells us intelligence is innate and fixed. It has been widely believed for centuries, and still is, that a person is either born smart or not, that education, opportunity, motivation, and hard work can only carry one so far because most intellectual ability is tightly confined by inherited or genetic restraints. Worse, these limits are believed to be identifiable by a test, a few report cards, or maybe by nothing more than a mere glance at one's physical appearance. Alfred Binet, the French psychologist who developed the intelligence quotient (IQ) test in the early 1900s, would surely be one of its most vocal critics today if he were still alive. He created the test specifically for the purpose of identifying children who suffered from severe mental problems or learning disabilities so that they could receive special attention early on. Binet never intended or imagined that his test would be seen as a valid way to measure innate intelligence and grounds for making sweeping assumptions about the innate intelligence of large groups of people.

모든 통념 중 가장 해가 되는 통념은 / 지능이 선천적이고 고정된 거라고 말하는 것이다. / 수 세기간, 여전히 지금도 널리 알려진 바는 / 사람은 똑똑하게 태어나거나 그렇지 않게 태어난다는 것이고, / 교육, 기회, 동기부여, 열일이 어느 정도까지만 캐리(병맛 해석인데 너무 어울려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 대부분의 지적 능력은 물려 받는 혹은 유전적 제약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 더 최악은, 이러한 한계가 시험, 성적표 혹은 누군가의 신체 모습을 힐끗 보면 식별 가능하다고 생각된다는 것이다. / AB는 1900년대 초반에 IQ 테스트를 개발한 사람인데, / 오늘날 IQ 테스트의 가장 강력한 비평가일 것이다 / 아직 살아 있다면. / 그는 IQ 테스트를 구체적으로 아이들을 식별할 목적으로 발명했다 / 심한 정신적 문제나 학습 장애를 겪는 / 그래서 아이들이 일찍이 특별 주의를 받을 수 있도록. / AB는 의도하거나 상상하지 않았다 / 그의 테스트가 선천적 지능을 측정하는 유효한 방법이 될 거라고 / 그리고 광범위한 추정 에 대한 근거가 될 거라고 / 더 큰 집단의 사람들의 선천적 지능에 대한.



I am sure you can recall in childhood **bargaining with** a friend using the “**taking turns**” method. It is perhaps the easiest way of **resolving conflict** and should be considered as a first **alternative**. In fact, sometimes you cannot **come up with** a **compromise** that includes important components of each of your desired outcomes because (빈칸) the outcomes are so mutually exclusive. For example, if Kyle wanted to vacation in Hawaii and Rachel wanted to be with her parents in Florida over the same 10-day vacation, it would be impossible for the two to co-occur. So an **accommodation** would be necessary: Rachel gets to achieve her outcome this time since it is so important to her and her father is ill. In return, it is mutually agreed that the upcoming summer vacation the couple usually takes will be Kyle’s choice (**providing** no health emergency exists for Rachel’s father). Accommodation is a kind of delayed “quid pro quo”: in the long run things **even out**.

\* quid pro quo: 답례품



## Summary

1. 선택지가 상호 배타적이어서 둘 다 포함하는 타협안을 낼 수 없을 때 쓰는 방법이 ‘번갈아’서 하는 것
2. Ex.: 남녀가 각각 가고 싶은 휴양지가 다를 경우, 타협해서 한 곳만 가야함
3. 다음 번에는 이번에 양보한 사람이 가자는 곳으로 가야하는 게 인지상정 ☺



## KEY Point

1. 변형: 빈칸. Cause: 두 선택지(결과)가 상호 배타적 → Effect: 둘 다 포함한 합의 불가능 → 하나만 골라야!
2. MECE(Mutually Exclusive Collectively Exhaustive) 문제의 원인, 결과 등을 그룹화 할 때 자주 사용 ☺



## Vocabulary

1. bargain with: ~와 흥정하다, 협상하다
2. take turns: 교대로 하다
3. resolve conflict: 갈등을 해소하다
4. alternative: 대안
5. come up with: (아이디어 따위를) 내다
6. a compromise: 협상안
7. mutually exclusive: 상호 배타적인
8. an accommodation: 합의, 협상
9. providing: provided=if
10. even out: 똑같이 분배되다

I am sure you can recall in childhood bargaining with a friend using the “taking turns” method. It is perhaps the easiest way of resolving conflict and should be considered as a first alternative. In fact, sometimes you cannot come up with a compromise that includes important components of each of your desired outcomes because the outcomes are so mutually exclusive. For example, if Kyle wanted to vacation in Hawaii and Rachel wanted to be with her parents in Florida over the same 10-day vacation, it would be impossible for the two to co-occur. So an accommodation would be necessary: Rachel gets to achieve her outcome this time since it is so important to her and her father is ill. In return, it is mutually agreed that the upcoming summer vacation the couple usually takes will be Kyle’s choice (providing no health emergency exists for Rachel’s father). Accommodation is a kind of delayed “quid pro quo”: in the long run things even out.

\* quid pro quo: 답례품

---

---

---

---

---

---

---

---

---

---

I am sure you can recall in childhood bargaining with a friend using the “taking turns” method. It is perhaps the easiest way of resolving conflict and should be considered as a first alternative. In fact, sometimes you cannot come up with a compromise that includes important components of each of your desired outcomes because the outcomes are so mutually exclusive. For example, if Kyle wanted to vacation in Hawaii and Rachel wanted to be with her parents in Florida over the same 10-day vacation, it would be impossible for the two to co-occur. So an accommodation would be necessary: Rachel gets to achieve her outcome this time since it is so important to her and her father is ill. In return, it is mutually agreed that the upcoming summer vacation the couple usually takes will be Kyle’s choice (providing no health emergency exists for Rachel’s father). Accommodation is a kind of delayed “quid pro quo”: in the long run things even out.

\* quid pro quo: 답례품

나는 확신한다 / 니가 어린 시절을 회상할 수 있다고 / “교대로 하기” 방법을 사용하여 친구와 협상하는. / 이는 아마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일 것이다 / 그리고 첫 대안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 실제로, 너는 때때로 타협안을 내놓을 수 없다 / 니가 원하는 각 결과의 중요한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 결과들은 완전 상호 배타적이기 때문에. / 예를 들어, 만약 Kyle은 하와이에서 휴가를 보내길 원하고 Rachel은 플로리다에서 그녀의 부모님과 있기를 원한다면 / 동일한 10일 휴가 동안, / 이 두 사건이 동시 발생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 따라서 협상은 필수적이다: / Rachel이 이번에는 자신의 결과를 얻게 된다 / 그녀에게 너무 중요하고 아버지가 아프시니까. / 답례로, 상호 동의 된다 / 그 커플이 선택할 다음 여름 휴가는 Kyle의 선택이 될 거라는 데에 / (Rachel 아버지에게 건강상 비상 상황이 없다면). / 협상은 연기된 “답례품”인 것이다: / 장기적으로 상황은 공평해진다.

# Shean's KISS EBS

수특영독 10강: 요약, 3번

In a **cognitive** experiment, children were tested on four **sorting** tasks. Initially they were asked to put photographs of the fourteen toys they would later **encounter** in the playroom into two boxes painted to look like houses with the picture of a girl fixed on the door of one and the picture of a boy on the other. **Subsequently**, they sorted six red and blue **geometric** shapes, and photographs of six cats and dogs, six boys and girls, and six men and women. Each of the four sorting tasks was scored in one of four categories — totally successful, nearly successful, minimal attempt or failure. **Performance** improved with age, and children found it easier to sort for colour and species (cats and dogs) than to sort people or toys according to gender. Of the thirty children in the youngest group, only one was totally successful in sorting colour, one in sorting species, but no one **managed to** sort people by gender. In the oldest group 63 percent of children sorted people correctly by gender; 83 percent were successful with colour and 90 percent with species.



## Summary

1. 인지 실험: 장난감, 빨강 파랑 도형, 개와 고양이, 남자 여자를 각기 맞는 카테고리 분류하게 함
2. 완전 잘함, 좀 잘함, 보통, 실패의 4단계로 성과를 구분함
3. 나이가 들수록 성과는 더 나아졌는데, 보통 성별 구분보다는 색깔과 종 구분(개, 고양이)를 더 잘함



## KEY Point

1. 노의미



## Vocabulary

1. cognitive: 인지의
2. sort: 분류하다
3. encounter: 마주치다
4. subsequently: 그 후에
5. geometric: 기하학의
6. manage to v: 간신히 ~하다



In a cognitive experiment, children were tested on four sorting tasks. Initially they were asked to put photographs of the fourteen toys they would later encounter in the playroom into two boxes painted to look like houses with the picture of a girl fixed on the door of one and the picture of a boy on the other. Subsequently, they sorted six red and blue geometric shapes, and photographs of six cats and dogs, six boys and girls, and six men and women. Each of the four sorting tasks was scored in one of four categories — totally successful, nearly successful, minimal attempt or failure. Performance improved with age, and children found it easier to sort for colour and species (cats and dogs) than to sort people or toys according to gender. Of the thirty children in the youngest group, only one was totally successful in sorting colour, one in sorting species, but no one managed to sort people by gender. In the oldest group 63 percent of children sorted people correctly by gender; 83 percent were successful with colour and 90 percent with species.

인지 능력 실험에서, 아이들은 네 가지 분류 작업에 대한 테스트를 받았다. / 처음에 아이들은 14개 장난감의 사진을 놓으라고 들었다 / 놀이방에서 나중에 마주칠 / 집처럼 보이게 칠해진 두 개의 박스에 / 한 집 대문엔 여학생 사진이, 다른 집 대문엔 남학생 사진이 붙어 있는. / 그 후, 아이들은 6개의 빨강 및 파란색 도형, 6마리의 고양이와 개 사진, 6명의 남, 여학생, 6명의 남성 여성을 분류했다. / 네 개 분류 작업은 모두 네 개 수준으로 점수가 매겨졌다. / - 완전 성공, 거의 성공, 최소한 시도는 함, 실패로 나뉘었다. / 성과는 나이에 따라 더 나아졌다, / 그리고 아이들은 색깔 및 종 분류가 더 쉽다는 걸 알았다 / 사람들이나 장난감들을 성별에 따라 분류한 것 보다. / 가장 어린 집단에 있던 30명 중에서, / 한 명만이 색깔 분류를 완벽히 했고, 한 명만이 종 분류를 완벽히 했다, / 하지만 아무도 사람을 성별로 구분하지는 못했다. / 가장 나이가 많은 집단에서는 63퍼센트의 아이들이 사람들을 성별에 따라 정확히 분류했다; / 83퍼센트는 색깔 분류에 성공적이었고, 90퍼센트는 종 분류에 성공적이었다.





Considerations about print size may eventually become **outmoded** because of the rise in **availability** of **talking books** or the talking text option found in some e-books. For example, Bouchard Ryan and her colleagues observed that older adults with visual problems were more likely to change from reading newspapers and magazines (which typically have small print and poor contrast) to listening to talking books. They also noted that about **a quarter** of their sample used computer technology to **enlarge** print. (삽입 However, although talking books offer a solution to people with **sight difficulties**, they are not, as is commonly supposed, a direct **substitute** for reading.) Two reasons can be cited. First, the narrator will almost certainly place emphases upon what is being read out that may not match what the listener would **emphasize** were he or she reading for themselves. Second, in reading it is easy to move back over a passage of print just read, or to **skim through** a section of **prose**. This is either very difficult or impossible to do when using a talking book.



1. 오디오책(A) 이용 증가 → 활자(B) 크기 중요성 감소. Ex.: 노인분들이 점차 신문에서 오디오책으로 넘어가심
2. However, A는 B의 대안 X. Cause (1): 읽을 때 나레이터와 독자의 강조점이 다름
3. Cause (2): 독서할 땐 앞뒤로 바로바로 왔다 갔다 가능, A에선 불가



1. 변형: 문장 삽입. 삽입 문장 앞은 B에서 A로 넘어가는 추세 설명, 삽입 문장 뒤로 그렇지만 A가 B의 대안이 아닌 두 가지 이유 설명!



1. outmoded: outdated(오래된, 구식의)
2. availability: 이용가능성
3. talking book: 오디오북
4. a quarter: ¼
5. enlarge: 확대하다
6. sight difficulties: 시력 문제
7. substitute: 대안
8. emphasize: 강조하다
9. skim through: 훑다
10. prose: 산문, 글



# Shean's KISS EBS

수특영독 10강: 어휘, 4번

Considerations about print size may eventually become outmoded because of the rise in availability of talking books or the talking text option found in some e-books. For example, Bouchard Ryan and her colleagues observed that older adults with visual problems were more likely to change from reading newspapers and magazines (which typically have small print and poor contrast) to listening to talking books. They also noted that about a quarter of their sample used computer technology to enlarge print. However, although talking books offer a solution to people with sight difficulties, they are not, as is commonly supposed, a direct substitute for reading. Two reasons can be cited. First, the narrator will almost certainly place emphases upon what is being read out that may not match what the listener would emphasize were he or she reading for themselves. Second, in reading it is easy to move back over a passage of print just read, or to skim through a section of prose. This is either very difficult or impossible to do when using a talking book.

인쇄 크기에 관한 고려사항들은 결국 쓸모 없어질 것이다 / 오디오책 혹은 ebook에 있는 오디오 텍스트의 이용 가능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 예를 들어, BR와 동료들은 말했다 / 시력 문제가 있는 나이든 어른들은 더 바꿀 가능성이 높다고 / 신문과 잡지를 읽는 것에서(작은 글씨크기와 좋지 않은 명암 대비를 지닌) / 오디오책을 듣는 것으로. / 이들은 또한 주목했다 / 표본의 4분의 1이 글씨 크기 확대를 위해 컴퓨터 기술을 사용했다고. / 하지만, 오디오책이 시력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해결하더라도, / 흔히 생각되는 것처럼 독해에 직접적인 대체재가 되지는 못한다. / 두 개의 이유가 언급될 수 있다. / 첫째, 나레이터는 강조점을 명확히 둘 것이다 / 소리 내어 읽는 부분에 / 이는 듣는 사람이 강조할 부분과 맞지 않을 수 있다 / 직접 듣는 사람이 읽는다면. / 둘째, 독해에서는 방금 읽은 단락으로 돌아가기가 쉽다, / 혹은 글의 한 부분을 훑기가 쉽다. / 이는 오디오책에서는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Differentiated instruction** can provide students with the opportunities needed to succeed in a **fast-paced** class **in spite of** any learning deficiencies. The essence behind differentiated instruction is to provide multiple **avenues** for a student to learn content that considers the **uniqueness** of each individual student. (1) It is based upon the premises that no two students are **identical** even when similar in interests, appearance, culture and surrounding environments. (2) Students at various academic levels within the classroom can be provided with **alternative** assignments that allow students to perform at their current level. (3) Differentiated instruction is effective because it **expels** the myth and practice of “**preaching to the choir**” and “**cookie cutter education.**” (4) It provides students with the opportunities to demonstrate the skills they have without being penalized for the ones they do not have.

\* premise: (주장의) 전제 \*\* penalize: 불리하게 하다



## Summary

1. 수준별 교육: 두 학생이 절대 같지 않고, 각기 다른 수준, 배경을 가졌다는 전제 하에 교육 기회 제공
2.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에게 그 수준에 맞는 과제를 제공함
3. 수준별 교육은 천편일률적 교육이 아니라 각자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여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함



## KEY Point

1. 변형: 흐름 X. (1) ~ (4)는 다 수준별 교육의 이점 어필. 중간에 문제점 나오면 탈락!



## Vocabulary

1. differentiated instruction: 수준별 수업
2. fast-paced: 빠른 속도의
3. in spite of: despite(불구하고)
4. avenue: 길, 방안
5. uniqueness: 고유함
6. identical: 동일한
7. alternative: 대안의
8. expel: 쫓아내다, 추방하다
9. preaching to the choir: 두말하면 잔소리
10. cookie cutter: 천편일률



Differentiated instruction can provide students with the opportunities needed to succeed in a fast-paced class in spite of any learning deficiencies. The essence behind differentiated instruction is to provide multiple avenues for a student to learn content that considers the uniqueness of each individual student. It is based upon the premises that no two students are identical even when similar in interests, appearance, culture and surrounding environments. Students at various academic levels within the classroom can be provided with alternative assignments that allow students to perform at their current level. Differentiated instruction is effective because it expels the myth and practice of “preaching to the choir” and “cookie cutter education.” It provides students with the opportunities to demonstrate the skills they have without being penalized for the ones they do not have.

\* premise: (주장의) 전제 \*\* penalize: 불리하게 하다

수준별 수업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빠르게 진행되는 수업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 학습 장애에도 불구하고. / 수준별 교육 기저의 본질은 여러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 내용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 각 학생의 고유함을 고려하는. / 이는 전제에 기반하고 있다 / 두 학생은 동일하지 않다는 / 관심, 외양, 문화, 배경이 비슷할 때에도. / 교실 내의 다양한 학업 수준의 학생들은 대체 숙제가 제공될 수 있다 / 학생들이 현 수준에 맞게 할 수 있는. / 수준별 수업은 효과적이다 / 통념과 관행을 축출하므로 / “두말 하면 잔소리”나 “천편일률적 교육”의. / 이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 이들이 가진 능력을 증명할 / 가지고 있지 않은 능력으로 불리하게 되지 않고.

# Shean's KISS EBS

수특영독 10강: 문장 삽입, 9번

The arrival of the steam engine extended our radius of activity. We built **steamships** that moved more people much more quickly across the oceans. Later, we developed engines and turbines. Our **means** of transport evolved from the coach to the train and from the sailboat to the steamship. Then came the airplane, and nowadays, we even travel into space. Travel used to be something that special people did for special reasons; today, everyone travels to the far corners of the earth **without** giving it a **second thought**. In the early 1900s, people who travelled to New York by steamship reckoned on staying a lifetime. They packed up all their **possessions** in cabin trunks and took them along. Today, we go to New York for the weekend, carrying only a small piece of hand luggage.

\* reckon on: ~을 예상하다 \*\* radius: 반경, 범위



## Summary

- 증기선, 비행기, 우주선의 발명으로 인류의 활동 반경이 넓어짐
- 옛날에 여행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었으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구 구석구석 여행함
- Ex.: 예전에는 뉴욕을 간다 하면 무조건 '이주'였는데 오늘날에는 가벼이 '여행'으로 다녀옴



## KEY Point

- 아하~ 그렇구나 ㅎㅎ



## Vocabulary

1. steamship: 증기선
2. means: 수단
3. without a second thought: 더 생각지도 않고
4. possessions: 소유물





The arrival of the steam engine extended our radius of activity. We built steamships that moved more people much more quickly across the oceans. Later, we developed engines and turbines. Our means of transport evolved from the coach to the train and from the sailboat to the steamship. Then came the airplane, and nowadays, we even travel into space. Travel used to be something that special people did for special reasons; today, everyone travels to the far corners of the earth without giving it a second thought. In the early 1900s, people who travelled to New York by steamship reckoned on staying a lifetime. They packed up all their possessions in cabin trunks and took them along. Today, we go to New York for the weekend, carrying only a small piece of hand luggage.

\* reckon on: ~을 예상하다 \*\* radius: 반경, 범위

증기 기관의 도래는 우리의 활동 반경을 넓혔다. / 우리는 증기선을 만들었다 / 바다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더 빨리 이동시킨. / 그 후 우리는 엔진과 터빈을 개발했다. / 우리의 이동 수단은 마차에서 기차로 그리고 범선에서 증기선으로 발전했다. / 그리고 비행기가 나왔고 최근엔 우주로 여행한다. / 여행은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한 이유로 하는 무언가였다; / 오늘날, 모두가 지구의 먼 구석까지 여행한다 /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 1900년대 초반에는, 뉴욕으로 증기선을 타고 여행한 사람들은 / 평생 머무는 것을 예상했다. / 이들은 대형 트렁크에 모든 소유품을 싸서 가지고 갔다. / 오늘날 우리는 주말에 뉴욕을 간다, / 손가방만 들고.

The thousands of infants who will be born today across the world will experience very different environments in their first two years. Some will be cared for by grandmothers or older sisters; some will attend day care centers; some will remain at home with their mothers. Some will have many toys; some will have not one. Some will spend the first year in a dark, quiet hut wrapped in old rags; some will crawl in brightly lit rooms full of toys, picture books, and television images. But despite these differences, excluding the small proportion with serious brain damage or a genetic defect, most will speak before they are two years old, become self-conscious by the third birthday, and be able to assume some family responsibilities by age seven. The psychological differences among these children are trivial when compared with the long list of similarities. The prevalence of serious mental disorders like schizophrenia and depression, as well as the less impairing anxiety disorders, is surprisingly similar around the world, even though children are being reared in different environments.

\* schizophrenia: 조현병(調絃病)



1. 이 세상에 태어날 아이들은 빈부격차에 따라 다양하게 살아갈 것
2. However,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말도 할 거고, 자의식도 가질 거고, 훌륭한 가족 구성원이 될 것
3. 심지어 질병도 비슷하게 걸릴 것이기에, 아이들은 환경이 다를지라도 차이점보단 공통점이 많음



1. 그러니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자..!?



1. a hut: 오두막
2. rag: 누더기
3. crawl in: ~로 기어들어 오다
4. exclude: 배제하다
5. defect: 결점
6. self-conscious: 자의식이 있는
7. trivial: 사소한
8. prevalence: 만연함
9. impair: 손상시키다
10. rear(v): 기르다



The thousands of infants who will be born today across the world will experience very different environments in their first two years. Some will be cared for by grandmothers or older sisters; some will attend day care centers; some will remain at home with their mothers. Some will have many toys; some will have not one. Some will spend the first year in a dark, quiet hut wrapped in old rags; some will crawl in brightly lit rooms full of toys, picture books, and television images. But despite these differences, excluding the small proportion with serious brain damage or a genetic defect, most will speak before they are two years old, become self-conscious by the third birthday, and be able to assume some family responsibilities by age seven. The psychological differences among these children are trivial when compared with the long list of similarities. The prevalence of serious mental disorders like schizophrenia and depression, as well as the less impairing anxiety disorders, is surprisingly similar around the world, even though children are being reared in different environments.

\* schizophrenia: 조현병(調絃病)

오늘 세계에서 태어날 수천명의 아기들은 매우 다른 환경을 겪을 것이다 / 첫 두 해 동안. / 누군가는 할머니나 언니 누나가 돌봐줄 것이다; / 누군가는 아동 복지 센터에 갈 것이고; / 누군가는 엄마와 집에서 지낼 것이다. / 누군가는 많은 장난감을 가질 것이고; 누군가는 하나도 갖지 못할 것이다. / 누군가는 첫 1년을 어두운 초가삼간의 집에서 살 것이고; / 누군가는 장난감, 그림책, TV 그림으로 가득 찬 밝은 조명의 방으로 기어들어올 것이다. / 하지만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 심각한 뇌 손상이나 유전적 결함을 제외하고, / 대부분은 2살이 되기 전에 말을 할 것이고, / 세 돌이면 자의식이 생길 것이며, / 7살이면 집안일도 도맡을 수 있다. / 이러한 아이들 사이의 심리적 차이는 사소한 것이다 / 수 많은 유사성에 비하면. / 조현병이나 우울증과 같은 심각한 정신 질환의 만연함은, / 손상이 덜한 불안 증세 뿐만 아니라, / 세계적으로 놀랍게도 유사한 증상이다, / 아이들이 다른 환경에서 길러질 지라도.

How nurses saw their work was often **at odds with** how others viewed it. Many physicians insisted on a **distinct separation** between their work and nurses' work, and a **privileging** of one over the other. Even the slightest suggestion that some nurses, such as nurse administrators, might **exert** control over medical work **elicited stinging blame**. At times, nursing work seemed to **prioritize** the order of the hospital ward over patient comfort. One example comes from a poem written by a nurse bemoaning that good nursing before the 1970s usually meant running a ward with neatly made beds, **uncluttered** bedside tables, **uniformly** drawn window shades, and "the patient clean, quiet and dependent." When a 1950s study asked student nurses about the importance of "tender, loving care" as a technique in good nursing care, the majority responded that it "ought not to be overdone" and perhaps reserved for only some patients. This suggests that the students **equated** caring **with sentimentality**. But whatever the students' analysis, they clearly rejected caring as the first or most highly valued aspect of nursing.

\* bemoan: 한탄하다



## Summary

1. 의사들은 간호사들이 월권하지 못하도록, 의사의 업무와 간호사의 업무를 확실히 구분하길 원함
2. 때때로 간호 업무는 환자의 편안함(A)이 아니라 병동의 질서(B)를 우선시 하는 경향
3. Ex.: 1970년대 전 간호는 A가 우선이었는데, 1950년 후 학생들은 점차 A를 최우선순위로 안 둠



## KEY Point

1. 어휘는 평가원 느낌으로 넘나 좋은데... 요약 1번이랑 2번 보면 글의 일관성 1도 없는 거 실화? ㅈㅈ... 어휘는 꼭 다 챙겨요 제발 plz



## Vocabulary

1. at odds with: ~와 불화인
2. distinct separation: 뚜렷한 구분
3. privilege(v): 특혜를 주다
4. exert: ~을 행사하다, 발휘하다
5. elicit: 끌어내다
6. stinging blame: 신랄한 비난
7. prioritize: 우선시 하다
8. unclutter: 정돈하다
9. uniformly: 균일하게
10. equate A with B: A와 B를 동일시 하다
11. sentimentality: 지나친 감정 이입



How nurses saw their work was often at odds with how others viewed it. Many physicians insisted on a distinct separation between their work and nurses' work, and a privileging of one over the other. Even the slightest suggestion that some nurses, such as nurse administrators, might exert control over medical work elicited stinging blame. At times, nursing work seemed to prioritize the order of the hospital ward over patient comfort. One example comes from a poem written by a nurse bemoaning that good nursing before the 1970s usually meant running a ward with neatly made beds, uncluttered bedside tables, uniformly drawn window shades, and "the patient clean, quiet and dependent." When a 1950s study asked student nurses about the importance of "tender, loving care" as a technique in good nursing care, the majority responded that it "ought not to be overdone" and perhaps reserved for only some patients. This suggests that the students equated caring with sentimentality. But whatever the students' analysis, they clearly rejected caring as the first or most highly valued aspect of nursing.

\* bemoan: 한탄하다

간호사들이 자신의 일을 보는 방식은 보통 맞지 않다 / 다른 이들이 보는 방식과. / 많은 의사들은 분명한 구분을 주장했다 / 그들과 간호사의 업무 사이에, / 그리고 자신의 일에 간호사 일보다 특권을 부여할 것을. / 일말의 제안도 / 제일 높은 직급의 간호사와 같은 사람들이 의료 업무에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 신랄한 비난을 이끌어냈다. / 때때로, 간호 업무는 병동의 질서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처럼 보였다 / 환자의 편안함보다는. / 한 예시로 한 간호사가 쓴 시가 있다 / 1970년대 이전의 좋은 간호일은 의미했다고 / 병동을 관리하는 것을 / 잘 정리된 침상, 침대 옆 정돈된 테이블, 정갈한 창문 그림자, 그리고 "깨끗, 조용, 순응하는" 환자들로. / 1950년대 연구가 간호대학 학생들에게 "부드럽고, 애정 넘치는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물어 보았을 때, / 좋은 간호사의 방식으로서, / 대다수가 "너무 지나치면 안 되죠"라고 응답했고 / 몇몇 환자들에게만 적용된다고 얘기했다. / 이는 암시한다 / 학생들이 보살핌과 정서를 동일시 했다는 것을. / 하지만 학생의 분석이 무엇이든, / 학생들은 보살핌이 가장 중요한 간호 업무의 측면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